

건축도시공간연구소

AURI BRIEF

No. 23 2010. 2. 22

해외의 건축아카이브 운영체계와 시사점

- 세계 각국은 자국의 건축 및 도시분야의 문화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료수집, 관리가 이루어지는 아카이브(archive)를 중심으로 전시, 교육프로그램이 강조된 박물관(museum) 및 센터(center)등을 운영하면서 자국의 건축문화의 보존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거점으로서 활용되고 있음
- 아카이브는 1차적으로 건축문화의 창조적 역량강화를 위하여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확보하여 지속적인 문화자산을 만들어내는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2차적으로는 건축분야의 자산에 대한 건축문화적 가치부여와 가치창출 역할, 건축문화를 국민 모두가 향유하고 접근가능하도록 하는 역할, 건축문화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 한국에서는 2007년 건축기본법 제정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설립을 통하여 건축문화 진흥을 통한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으로써 건축문화에 대한 관심증대와 관련분야의 정책적인 지원에 대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시점이며, 특히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한 기록자료 구축에 관한 사항(시행령제3조)과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조항(시행령제18조)을 마련하였음
- 국내 건축, 도시분야에 대한 아카이브 작업으로는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일제강점기의 조선총독부 도면에 대한 해제작업을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2007년 학교시설, 2008년 고적·관사·박물관, 2009년 행형시설(형무소)·사법시설(법원))하고 있으며, 아르코예술정보관에서 '한국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몇몇 건축가(장기인, 엄덕문, 이광노, 박춘명, 송민구)에 대한 작업이 진행되었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임
- 우리나라도 건축아카이브 설립을 통하여 건축기본정책 등의 추진에 있어서 문화자산을 생산하는 기반으로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며, 건축아카이브 해외사례는 건축박물관 설립, 국립현대미술관 내 건축분과 설립 등의 최근 논의와 더불어 아카이브의 정책적 추진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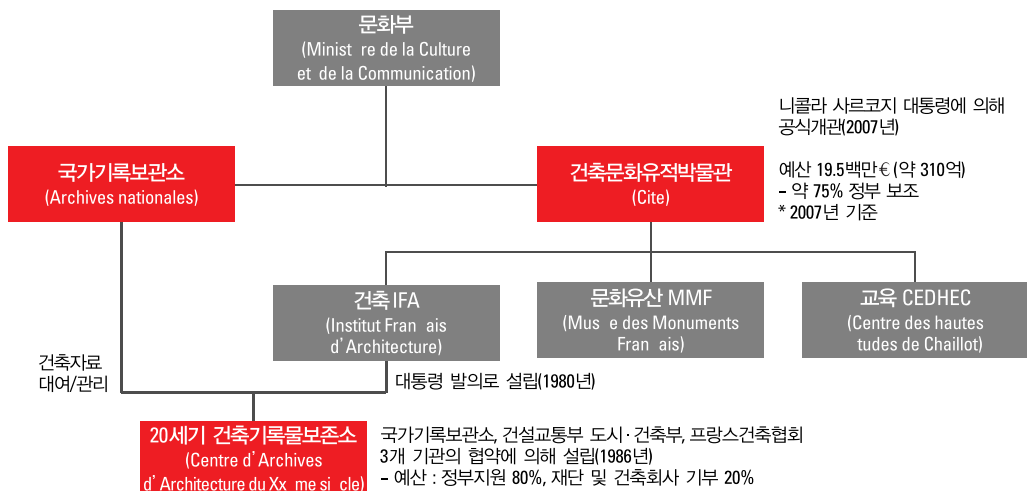
1. 해외 건축아카이브 운영체계

정부주도(정부 : 설립, 운영지원)_프랑스

- 20세기 건축기록물보존소는 국가기록보관소, 건설교통부 도시·건축부, 프랑스건축협회의 3개 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1986년 설립되어 운영되었고, 2006년 IFA와 MMF, CEDHEC가 건축문화유적박물관(Cite de l' Architecture et du Patrimoine)으로 통합
- 통합 사유는 IFA의 경우, 지속적으로 수집되는 자료에 대하여 전시, 교육 등의 활용을 강조하는 시대적 요구가 있었고, MMF나 CEDHEC의 경우, 전시, 교육기관의 건축관련 콘텐츠의 부재로 인한 지속적인 콘텐츠 확보에 대한 요구가 상호 겹치게 되면서 각 기관의 독립성은 유지하면서 건축문화유적박물관(Cite)으로 통합하여 운영
- 20세기 건축기록물보존소는 국가기록보관소와 업무영역이 구분되어 있는데, 각 설계사무소, 건축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중간가치 평가와 일시적 활용은 20세기 건축기록물보존소에서 진행하고 국가자산으로 영구보존 가치가 있는 자료는 국가기록물보관소에 보관

프랑스 20세기 건축기록물보존소 개요

명칭	프랑스 20세기 건축기록물보존소(Centre d'Archives d'Architecture du X ^e me si cle)
설립연도	1986년
운영조직	프랑스건축협회 산하 기관 (국가기록보관소, 건설교통부 도시·건축부, 프랑스건축협회(IFA) 3개 기관의 협약에 의해 설립)
목적	- 건축유산의 보호, 복원 - 동시대의 건축문화 촉진 - 자료에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창작을 북돋음 - 일반 대중에게 건축의 수준을 알리고 건축사의 자료를 수집
특징	- 20세기 건축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국가기록관에서 자료를 대여하여 보존 -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일을 하며, 고문자로서의 역할도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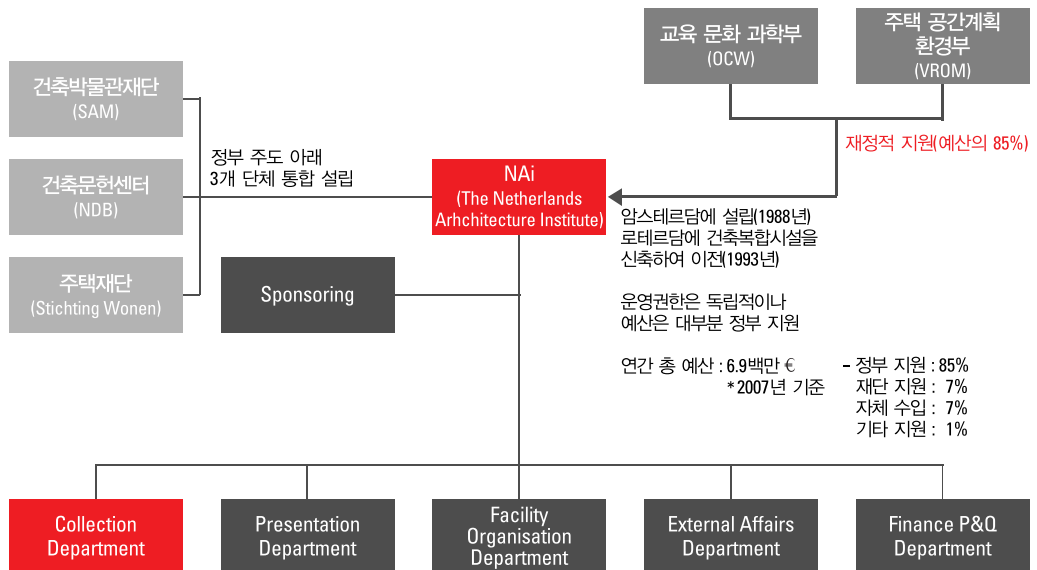
프랑스 20세기 건축기록물보존소 조직도

■ 건축관련 단체주도(정부 : 설립지원 / 민간 : 운영)_네덜란드

- NAI는 네덜란드의 국가건축정책과 연계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기구들-네덜란드 건축문화 센터(NDB), 건축박물관재단(SAM), 주택재단(Stichting Wonen)-을 통합
- 설립목적은 건축분야의 자료보존, 전시 및 도서발간 작업과 건축 및 도시계획을 지원하는 복합건축센터로서의 역할 수행
- 수집된 건축자료는 정리 및 담론화 과정을 통하여 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건축 설계산업을 해외에 수출하는 기반역할을 하고 있으며, NAI에서 수집된 건축관련 자료는 영구보존가치를 지님

NAI개요

명칭	NAI(The Netherlands Architecture Institute)
설립연도	1988년(암스테르담), 1993년(로테르담으로 이전, NAI 공간개방)
운영조직	재단(정부 주도 설립 및 재정적 지원, 운영은 독립적)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분야의 자료보존, 전시 및 도서발간 작업 - 건축 및 도시계획을 지원하는 복합 건축센터 - 수집품과 관련된 연구 성과의 대중화를 지향하는 종합적인 건축 문화기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컬렉션의 규모와 범위 - 정부 부처는 건축박물관 운영과정 전반을 온전히 네덜란드건축협회 위원회에 넘겼으며, 문화후원금과 정책적 지원을 해오고 있음 - 네덜란드건축협회는 다양한 형태의 연구 및 전시 활동을 통해서 정부정책을 지원하고 형성하는 역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건축아카이브의 기능과 전시관, 도서관 그리고 교육기능까지 포함한 통합적인 운영체계와 조직체계, 정부 부처와 건축박물관간의 긴밀한 상호협력 관계에 있어서 모범적 형식으로 평가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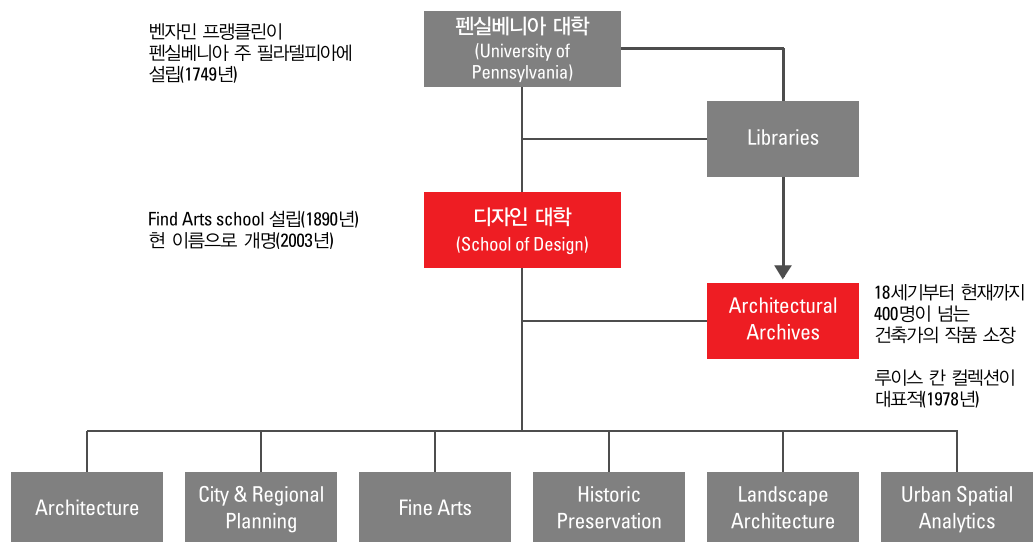
NAI 조직도

■ 민간단체 주도(주정부 : 설립지원 / 대학·재단 : 운영)_미국

- 근대시기의 거장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루이스 칸’ 등의 자료는 그들이 교수로 재직하였던 곳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보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자료는 일반적인 기증방식보다는 학교가 자료수집의 적극적인 주체로서 관련 주정부와 기관 등을 설득하여 작품을 구매하고 학교에 영구임대하는 형식으로 진행
- 이같은 진행방식은 지역이나 소속의 대학에서 유명건축가를 지역의 문화자산이자 지역 건축문화자산으로 인식하여 특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임. 이러한 자료는 다시 교육이나 학교 자체의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디지털화를 통한 공개를 전제로 진행하고 있고 학교졸업생이나 교수들의 자료로까지 수집대상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대학의 건축아카이브로 성장

펜실베이니아대학 건축아카이브 개요

명칭	펜실베이니아대학 건축아카이브(Architectural Archives)
설립연도	1978년(루이스 칸 컬렉션)
운영조직	사립대학
목적	- 18세기 이후 활동한 건축가들의 작품 수장 및 수선 - 홍보를 위한 전시 및 전문 도서관과 열람실 운영
특징	- 루이스 칸 컬렉션은 펜실베이니아 주 정부가 칸 재단으로부터 사들인 자료를 펜실베이니아 대학에 영구 대여한 것 - 다른 도서관과는 달리 자료의 공개에 상당히 적극적임 - 모든 자료들은 일정 절차를 거쳐 신청할 경우 공개를 원칙으로 함 -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미지 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나 고해상도 스캔이미지는 원하는 사람에게 유료로 판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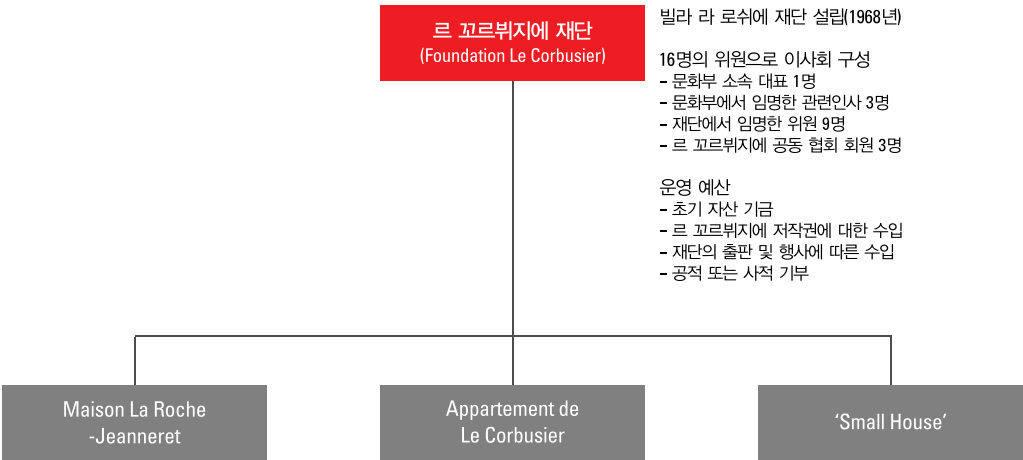
펜실베이니아대학 건축아카이브 조직도

■ 민간단체 주도(민간 : 설립, 운영)_프랑스

- 르 꼬르뷔지에 재단은 20세기의 프랑스, 세계건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한 건축가에 집중된 기관임. 르 꼬르뷔지에 작품, 자료에 관한 수집, 복원 보존 등의 역할을 기본적인 업무로 수행하면서,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전시, 출판, 강의, 세미나, 영화 등을 통한 대중들에게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
- 이 외에도 르 꼬르뷔지에가 설계한 건물의 유지, 관리와 건축가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다양한 담론 생성등의 중심역할을 수행

르 꼬르뷔지에 재단 개요

명칭	르 꼬르뷔지에 재단(Foundation Le Corbusier)
설립연도	1968년
운영조직	사립재단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르 꼬르뷔지에 작품, 자료에 관한 수집, 복원, 보존- 전시, 출판, 강의, 세미나, 영화 등을 통한 대중들에게의 홍보- 르 꼬르뷔지에가 설계한 건물의 유지, 관리- 르 꼬르뷔지에 작품과 그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연구 촉진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Villa La Roche, Jeanneret, Corseaux apartment 3곳에서 분할 운영- 르 꼬르뷔지에 작품의 도면, 연구, 계획안을 비롯한 수많은 그림 소장- 문서 및 사진자료 아카이브를 위한 상당한 크기의 컬렉션 보유- 자료의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자료관리를 위한 자문 제공



르 꼬르뷔지에 재단 조직도

2. 시사점

■ 수집대상 자료에 대한 공증된 가치 창출의 역할

- 수집대상이 되는 자료는 '국가건축문화의 정체성'이나 '문화적 자산' 등 각 건축아카이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국가차원의 공증된 가치를 인정받게 되며, 아카이브라는 영구 기록보존기관에 보관됨으로서 지속적으로 그 가치를 평가받게 됨

■ 개인의 자료도 사회적 자산으로 인식함에 따른 아카이브 기관에 자료기증

- 자료기증, 무상제공 등 저작자의 자료 제공의사가 명확한 자료를 기초적인 조건으로 고려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건축가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강제적인 자료수집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개인적인 의사가 우선이기 때문임
- 또한, 개인자료라 할지라도 사회적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회에 다시 제공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개인적인 보관보다는 보존처리가 비교적 양호하게 진행되는 기관에 맡기고 있음

■ 운영주체(국가, 민간)에 따른 수집범위 및 세부운영방식의 차이

- 국가주도의 경우, 건축가에 대한 기록의 중요성을 국가자산 차원에서 인정하거나 건축가를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자국의 건축문화관련 행사의 콘텐츠로 활용하거나 해외에 홍보함으로써 해외건축설계시장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민간주도의 경우, 특정 건축가를 중심으로 한 자료수집에서 아카이브가 진행되나 한 건축가에 추가적으로 몇몇 학생, 학교관련 기록이 수집되는 정도에 불과함
- 따라서, 아카이브 목표에 따라 적절한 운영주체와 수집범위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나, 단순한 건축가 자료의 수집보다는 활용도를 고려하여 국가주도의 아카이브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엄운진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도시연구본부 연구원(031-478-9643, raum@auri.re.kr)